

# 영국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에 대한 이해

김 대 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론의 근본사명은 문학예술에 대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문학예술을 시대와 력사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작하도록 선도하는것이 평론의 기본과업이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43페이지)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평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문학평론은 로동계급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을 창조해나가기 위한 길을 밝혀줌으로써 문학창조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며 그것을 강력히 추동한다.

1930년대에 영국에서는 진보적인 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이 창조되어 일정한 기간 적극적인 발전의 길을 걸었다.

이 시기 영국에서 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의 창조는 선진적인 지식인들과 공산당원문필가들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영국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가들로서는 존 콘퍼드(1915-1936), 루이스 존즈(1897-1939), 토마스 잭슨(1879-1955), 엘리크 웨스트(1895-1972), 크리스토퍼 코두웰(1903-1937), 랠프 폭스(1900-1937) 등이 있었으며 작가들인 잭크 린드지(1900-1990), 손 오케이씨(1884-1964) 등도 평론활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평론가들은 당시 영국공산당과 그밖의 사회주의조직단체들의 정기간행물들인 《월간로동》, 《주간로동자》, 《좌익평론》 등 여러 잡지들에 글들을 발표하였다.

영국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이 제기한 기본문제들은 영국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창조를 위한 리론적연구에 집중되였다.

영국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에서 주목되는것은 첫째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과 유럽에서 널리 성행하고있던 부르쵸아문화와 퇴폐주의문학, 반동적문예리론에 대하여 예리한 폭로비판을 가한것이다.

당시에 부르쵸아작가들과 문예평론가들은 현대문학이 쇠퇴몰락하고 위기에 처하였다고 떠들었다. 그들은 특히 소설문학이 시대에 뒤떨어진것이며 장편소설을 쓰는것은 시대착오적인것이라는 궤변까지 들고나왔다.

부르쵸아문인들은 그 원인이 다름아닌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사회주의사상과 그에 기초한 로동계급의 문학이 출현한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가 문학예술을 지나치게 《정치화》하였으며 그로 하여 생활을 허구와 가상에 의하여 반영하는 소설문학의 가치를 저락시키게 되었다는 악설을 퍼뜨렸다.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평론가들은 이러한 반동적인 궤변에 타격을 가하였다. 이 투쟁의 앞장에 선것은 랠프 폭스였다.

폭스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의 소설계가 부패하였으며 그 원인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문학예술에 준 영향에 있다고 주장하는 부르쵸아문예계의 론조에 대하여 신랄히 규탄하였다.

부르쵸아문인들은 사회주의사상은 유물론철학에 기초하기때문에 현실을 허구와 가상에 기초하여 형상하는 예술적표현에 적대된다고 떠들었다.

폭스는 부르쵸아문학과 문예리론의 궤변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현대문학이 쇠퇴몰락

하고있다는 주장의 허위성과 반동성을 까밝히었다.

그는 문학의 모든 허구와 가상은 창작가들이 살며 활동하는 현실세계의 반영이기때문에 반드시 현실에 기초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소설문학은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을 예술적형상으로 그려내며 그 예술적형상들은 사회적전형으로 될뿐만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개성적형상들로 된다고 설명하였다.

폭스는 쇠퇴몰락하여 위기를 겪고있는것은 부르조아문학예술뿐이며 현대문학전반이 쇠퇴하는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폭스는 현대부르조아문학이 위기를 겪고있는 요인은 그 창작가들자신의 사상, 세계관과 사회적환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부르조아문학창작가들이 인민대중의 생활과 완전히 유리되어 부패한 정신세계에서 헤매고있으며 그들이 시대의 선진사상, 선진적인 사회적운동을 적대시하고 외면하는데 바로 부르조아문학이 사멸되어가는 근원이 있다고 밝혔다.

폭스는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가 나아갈 옳은 길을 찾고 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은 근로인민대중의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 합류하는데 있으며 그러자면 시대의 선진사상을 대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문학예술창조사업이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힘차게 발전하고있던 본보기를 막심 고리끼(1868-1936)의 창작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쏘베트로씨야문학으로 들면서 거기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을것을 권고하였다.

부르조아문화와 퇴폐주의문학, 반동적문예리론에 대한 예리한 폭로비판은 코두웰의 평론들에서도 전개되었다.

크리스토퍼 코두웰은 당시에 가장 적극적인 문필활동을 벌린 평론가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평론-론문집들인 《환상과 현실》(1937), 《죽어가는 문화에 대한 단평》(1938), 《죽어가는 문화에 대한 계속되는 단평》(1949)들에서 당시 영국시문학이 절박한 사회계급적문제들을 외면하고 온갖 사말사적이며 부패한 정신세계속에서 헤매는 부르조아지의 감정정서만을 노래하는데 대하여 준렬히 규탄하였다. 그는 현대시문학은 마땅히 첨예한 사회계급적문제와의 련관속에서 자기의 발전방향을 찾아야 하며 근로인민중에게 절박한 문제들을 취급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코두웰은 현대 영국시문학의 부패와 위기는 부르조아시인들의 극단의 개인주의와 리기주의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바로 부르조아시인들의 사상적타락과 부패가 시문학으로 하여금 본질적인 사회적문제와 떨어진 극단의 타락과 방종, 개인적고독속에서 헤매며 죽어가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데 몰두하게 하고있다고 하였다.

코두웰은 부르조아시인들이 의거하고있는 사상정신적기초가 다름아닌 부르조아관념론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엘리크 웨스트도 평론집 《위기와 비평》(1937)에서 부르조아문학과 문예리론의 반동성을 비판하고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의 창조에 관한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예술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기초하여 절박한 사회계급적문제를 반영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창작가들이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에 기초하여 창작활동을 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에서 주목되는것은 둘째로, 영국과 유럽의 진보적문학의 발

전과정 특히 소설문학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과거의 진보적문학유산들에 대한 태도와 평가에 대한 주장을 내놓은것이다.

프로테타리아문학평론가들은 영국문학과 유럽 여러 나라들의 진보적문학유산들을 정확히 분석평가할것을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경험과 교훈을 찾고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창조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코두웰은 평론집 《죽어가는 문화에 대한 단평》과 《죽어가는 문화에 대한 계속되는 단평》에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의 진보적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대표적인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에 대한 분석평가를 주었다. 그는 허버트 웰스(1866-1946), 조지 버너드 쇼(1856-1950) 등을 비롯한 여러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해설하면서 그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하였다.

그는 쇼가 영국극문학에서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을 반영한데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부르쥬아문에평론이 그를 《사상극》을 내놓은 작가라고 비난한데 대하여 반격을 가하였다.

그는 또한 웰스가 영국부르쥬아사회의 부패성과 반동성을 신랄히 폭로비판한 측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토마스 잭슨도 평론 《찰즈 디킨즈, 급진주의자의 진보》(1937)에서 영국의 진보적이고 우수한 문학유산들인 차티즘문학, 진보적랑만주의문학과 비판적사실주의문학 특히 디킨즈의 창작을 분석평가하였다. 잭슨은 디킨즈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영국사회의 부패상과 사회적악덕에 대한 예리한 풍자폭로의 수법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진보적문학창작가들에게 문학에서 언제나 중요한 사회계급적문제들을 취급할것을 주장하였다.

잭슨은 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의 창작에서의 사상예술적부족점과 오류들에 대하여서도 밝히었다.

영국과 유럽의 진보적문학의 발전과정 특히 소설문학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과거의 진보적문학유산에 대한 태도와 평가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연구한것은 폭스였다.

그는 영국소설의 최초의 맹아들을 초서(1340-1400)와 보까치오(1313-1375), 존 릴리(1554-1606)의 《유푸이스》(1578)와 필리프 씨드니(1554-1586)의 《아카이다》 등에서 찾았다. 그는 유럽에서 진정한 소설의 창시자들을 라블레(1494-1553)와 셰르반페스(1547-1616), 대니얼 디포우(1660-1731)와 헨리 필딩(1707-1754), 조지 스몰리트(1721-1771)와 새뮤얼 리차드슨(1689-1761), 로런스 스톤(1713-1768) 등으로 찾아보고 18세기에 소설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한 루쏘(1712-1778), 월터 스코트(1771-1832), 제인 오스틴(1775-1817) 등을 그들의 작품들과 함께 분석평가하였다.

폭스는 19세기에 들어와서 소설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한 디킨즈(1812-1870), 썸머리(1811-1863), 브론테자매, 하디(1840-1928)와 새뮤얼 바틀러(1835-1902) 등의 영국작가들과 발자크(1799-1850), 플로베르(1821-1880) 등의 프랑스작가들을 차례로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의 소설가들인 로렌스(1887-1930)와 허버트 웰스(1866-1946), 조지 헉슬리(1896-1964)와 제임스 조이스(1882-1947), 프랑스의 소설가들인 마르셀 푸르스트 그리고 프로이트주의와 스펜서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폭스는 영국과 유럽에서의 소설문학이 문예부흥기 인문주의문학으로부터 발생하고

17세기 고전주의문학을 거쳐 18세기 계몽주의문학에 와서 개화한것으로 보았다.

그는 16세기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에 이르는 영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의 대표적소설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하면서 그 의의와 가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다.

폭스는 여기에서 과거의 문학유산을 해당 시기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감정과 기분을 옹계 반영하고 적극 지지공감하였는가 못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그 가치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한 고전문학유산의 의의와 가치를 어디까지나 오늘의 현실, 현재 인민대중의 요구와 시대적환경에 맞게 그와의 련관속에서 연구하며 평가할것을 주장하였다.

폭스는 특히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당시의 현실속에서 과거의 진보적문학유산들이 새 문학의 창조에 긍정적영향을 주어야 하며 그것이 고전문학유산에 대한 옳바른 태도로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영국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에서 주목되는것은 셋째로, 로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적문학,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을 창작할데 대하여 주장한것이다.

로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적문학의 창조에 관한 주장은 폭스, 린드지 그리고 오케이씨를 비롯한 여러 작가, 평론가들속에서 울려나왔다.

1950년대초에 선진적평론가들은 영국에서 중요한 문학리론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창조문제, 새 문학의 특징과 성격, 생활과의 련계문제 등을 내놓고 론쟁을 벌리었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창조문제에 대하여서는 작가들인 손 오케이씨와 잭크 린드지도 적지 않은 글들을 썼다.

특히 잭크 린드지는 영국에서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창작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도문제를 탐구하는 글들을 발표하였으며 자신이 창작실천을 통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원칙을 일정하게 구현하였다.

잭크 린드지는 론문집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대하여》에 발표한 자기의 글들에서 자본주의영국사회의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의 창조발전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로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적문학,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창조문제에 대하여 가장 일찌기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나선것은 폭스였다.

그는 자기의 평론집 《소설과 인민》에 수록된 여러 평론들에서 영국의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문학 특히 소설문학의 미래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히면서 그것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창조로 보았다.

그는 당시 영국문학이 혁명적주인공의 창조를 위하여 노력할것을 제기하고 거기서 성과를 거둔 실례를 들었으며 반파쑈투사들의 형상 특히 히틀러나치즘의 음모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투사들의 형상을 그려낼것을 제의하였다.

그는 문학의 언어문제와 민족문화유산을 문학창작에 충분히 리용할데 대한 문제도 론의하였다.

폭스는 영국의 문학발전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문학으로서의 진정한 로동계급의 문학창작의 길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길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현대의 진보적문학이 나아갈 길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길이라고 하면서 쇠퇴

몰락하고 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는 문학을 새롭게 재생시키고 발전시키자면 시대의 요구와 문학발전의 합법칙적결과인 사실주의창작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폭스는 각종의 진보적경향의 문학들도 자기의 생명력을 가지고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자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을 본받아야 하며 혁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기본과업은 시대가 요구하는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이며 그 주인공은 마땅히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투사의 형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폭스는 또한 새로운 문학으로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하면서 이 문학의 특성과 그 창작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요구들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을 주었다.

폭스를 비롯한 영국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가들의 평론활동은 영국의 진보적문학발전의 길을 선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특히 작가들로 하여금 노동계급의 새로운 문학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창조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창작실천에 구현하도록 일정하게 고무추동하였다.

그러나 영국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에는 적지 않은 제한성들도 나타났다.

영국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창조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문학의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문제를 정확히 제기, 해명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평론가들은 노동계급의 혁명문학이 어디까지나 당의 령도밑에 목적의식적으로 창조발전하는 문학으로 되어야 하며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문학으로 되어야 한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하였다.

그들은 진정한 문학은 진실로 사회주의적이며 노동계급적인 문학으로 창조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해명하지 못하였다.

평론가들은 특히 영국의 현실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구현방도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제안도 내놓지 못하였다. 다시말하여 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은 대부분의 경우에 구체적인현실과 유리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창조문제일반을 논의한것이였다.

그러므로 이 평론은 실지로 영국의 진보적인 작가들에게 노동계급의 당적이며 계급적인 문학발전의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지 못하였다.

영국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은 다음으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본질과 창작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 그 구현방도에 대하여 명백한 해명을 주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폭스, 코두웰을 비롯한 평론가들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주지 못하였으며 이 창작방법에 대하여 정의를 주려고 시도하였으나 옳바른 해명을 찾지 못하였다.

코두웰의 평론에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창조에 관한 방도문제를 그릇되게 서술하고있으며 노동계급의 새로운 문학이 응당 해결하여야 할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문제를 해명해주지 못하였다.

영국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은 다음으로 과거의 진보적문학유산에 대한 평가문제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로시킨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코두웰은 과거 영국문학의 유산에 대한 평가에서 력사주의적원칙을 구현하지 못하고

주관주의적오유를 범하였다.

폭스는 소설문학이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발생하였으며 자본주의의 쇠퇴몰락과 함께 쇠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17~18세기의 소설문학, 그중에서도 18세기 계몽주의소설문학의 의의와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19세기나 20세기의 소설문학은 그에 비하면 뒤떨어진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19세기 영국비관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들인 디킨즈와 셰커리, 프랑스의 발자끄와 플로베르 등의 작품들의 성과를 과소평가하였다.

폭스는 20세기의 소설문학은 16세기 인문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들이었던 셰르반페스와 라블레의 성과를 복구발전시키며 소설문학을 재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폭스의 이러한 견해는 사실주의소설문학의 발생발전에 대한 비과학적견해이며 그릇된 설명으로 되었다.

그러나 영국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은 노동계급의 혁명적문학평론을 창조하려는 첫 시도로 되며 부르조아문학과 문예리론에 타격을 가하고 처음으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창조문제를 제기하고 주장한것으로 하여 당시 영국의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을 창조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영향을 주었다.